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족(Azerbaijani, North of Kazakhstan)



인 구 : 85,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언 어 : 아제르바이잔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 (2009년)

#### 개요/역사

아제르바이잔족(아제르족으로도 알려짐)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지역과 민족은 그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침략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제르족의 본토는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에 의해 처음으로 침략당했다. 대부분의 아제르족은 무슬림이다. 아랍 무슬림들이 서기 7세기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 이슬람교를 소개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곳에서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서기 11세기까지는 터키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 미쳤던 페르시아의 영향을 능가했다. 13세기에 그 지역은 징기스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침략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족으로 결합했다. 그 결과 아제르족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었다. 오늘날 주요 아제르족 공동체는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르메니아, 이란, 그리고 이라크 등 나라들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약 만명이 넘는 아제르족이 이라크에 살고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쪽 지역에 터키 국경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 생활양식

과거에는 씨족제가 아제르족의 일반적 가족 형태였다. 씨족 또는 호즈(hoj)는 대개 한 조상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씨족 구성원들은 목초지를 나누어 갖고 상호 원조를 제

공하기 위해 결속되었다. 그들은 종종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로 행동했다. 40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가즈마(gazma)라고 불리는 큰 거주지에 함께 사는 것도 보통이다.

그 지역 내에서의 석유자원 개발은 많은 아제르인들의 생활상을 변화시켜 왔다. 소수의 사람이 아직도 기름진 토양에서 농사짓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은 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와 시내로 이사한다. 그 곳에서 그들은 덜 숙련된 일을 차지하게 되고 외국인 관리자들로 부터 지시를 받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종족 내의 혼인을 장려한다. 사촌 간의 결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비에트 시대 이전에는 비 아제르인과의 결혼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 일부다처제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아제르족의 식생활은 주로 육반(肉飯: 쌀밥과 잘게 썰은 고기를 섞은 것)과 소, 염소, 양고기 등의 다양한 양념 구이이다. 전통 요리는 보자르트마(bozartma, 양고기 찜), 도브가(dovga, 요구르트로 만든 스프), 육류, 허브 등이다. 차와 포도주는 대중적인 음료이다.

아제르어는 터키어계의 남서부 오구즈(Oguz)계에 속한다. 아제르의 주요한 2개의 하위 집단으로, 북부 아제르바이잔과 남부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주요 차이점은 소리와 언어의 기본 문법 구조이다. 아제르인들은 14세기의 구식 문어를 쓴다. 이란에서는 아랍문자가 사용되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키릴문자가 사용된다. 아제르인은 동부의 트란스코카서스, 남부의 다게스탄, 북서부의 이란어의 혼합어를 다소 사용하는데, 이것이 아직은 보편적이다.

#### 종교

우즈베키스탄의 아제르족은 기본적으로 시아파 전통의 무슬림이지만 하나피파 무슬림도 많이 있다. 시아파의 아제르인들은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고리를 반영한다. 20세기까지 대부분의 아제르족은 자신들을 아제르바이잔족 또는 투르크족으로서보다는 오히려 무슬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들은 "영적인 이슬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한 국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제르족은 종교적인 관습에 있어서, 여자의 활동이 대부분의 다른 무슬림 나라들보다 덜 엄격한 편이다. 대다수의 아제르 여자들은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지도자적 지위에 이른 사람도 약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제한적인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몇몇 증거가 남아있다.

#### 필요

이라크에 사는 아제르족은 다른 아제르인에 비해 복음이 약간 들어가있다. 다른 아제르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다른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 기도제목

\*선교사들에게 이라크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 \*우즈베키스탄에 기꺼이 가서 아제르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주시도록 기도하자
-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가서 그 땅을 깨우칠 기도팀을 불러주시도록 기도하자
- \*믿는 아제르족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나눌수 있도록 기도하자
- \*성령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아제르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선교단체들에게 전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 \*주님께서 아제르인들 사이에 강건한 지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